

「다공간」 디자인의 권장 —M메서드 : 새로운 가치창조에 향하여 게이오기주쿠대학교수 마쯔오카 요시유키

「풍부함」과「안심」의 사이에서 -대규모화·복잡화의 공과죄

오늘날까지의 디자인은, 사람들의 생활을 풍부하게 하여 왔다. 아름다움, 기능성, 편리성 등 사람들의 다양한 「풍부함」을 만족시키기 위해, 많은 특성을 제품에 주입시켜, 편리하고 쾌적한 사회를 실현하여 왔다.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해서, 디자인은 제품의 고성능화·다양화를 도모하여, 그 수단으로서 구조나 시스템의 대규모화·복잡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거기에는, 심각한 부작용의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다. 그것은, 안전성, 신뢰성, 내환경성 등의 「안심」에 대한 문제의 발생이다. 오늘날까지의 디자인은, 스스로의 자식인 제품을 대규모화·복잡화시켜, 키워 왔다. 그 결과, 비대화시켜 버린 자신의 자식을, 때에 따라서 제어할 수 없게 되었다. 후쿠시마의 원자력발전 사고나 비행기의 고장, 다양한 환경오염 문제도 그 한 예이다. 비대화한 제품은, 때에 따라서 그 위험성을 보이고, 폭주를 시작하고 있다. 현재의 디자인은, 「풍부함」과 「안심」의 사이에서 고뇌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디자인 과학의 지혜를 활용 - 다공간의 디자인 사고

이러한 제품의 대규모화·복잡화가 만들어낸 문제를 포함하여, 현재의 다양한 디자인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자인 과학이 연구되고 있다. 디자인 과학이란, 「디자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창조적 행위에 있어서 법칙성의 해명과, 디자인 행위에 이용되는 다양한 지식의 체계화」를 겨냥한 새로운 학문이다. 현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한 디자인 사고의 메카니즘이나, 참신하면서 완성도가 높은 제품개발을 위한 방법론 등, 많은 성과를 얻고 있다. 여전히, 디자인 과학에 관한 주요한 용어에 관해서는「디자인 과학사전」으로서, 현재 인터넷상에서, 디자인주쿠의 홈페이지 (<http://www.designjuku.jp>) 에 공개 되고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란다.

디자인 과학에 있어서 연구성과의 하나로서, 「다공간 디자인 모델」을 예로 들 수 있다. 이것은, 모든 디자인 행위를 일반성이 있는 모델로서 표현한 것으로, 디자인 이론의 틀의 하나로서도 이용되고 있다 (도 1 참조). 이 모델은, 디자인 사고와 그 원동력이 되는 디자인 지식의 두 개로 구성된다. 또한, 디자인 사고에 있어서는, 고려해야 하는 방대한 디자인 요소를, 가치, 의미, 상태, 및 속성이라고 하는 다수의 공강 (다공간) 에 구분하고 있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특히 대규모로 복잡한 구조나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디자인에 있어서는, 이 다공간의 특징이 유효한 것을, 이 모델은 설명하고 있다.

「M 메서드」 — 「자유로운 사고」와 「이상에 이루어진 사고」의 양립을 위해

「다공간 디자인 모델」에 기초한 디자인 방법으로서, 「M메서드 (다공간 디자인법)」이 제안되고 있다. 이 「M메서드」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경영, 기획, 연구, 게다가 일반의 생활에 있어서도 이용 가능한 사고 메서드이다 (도 2 참조). 이의 특징은, 머리 속에서, 「다공간을 시점으로 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분석하면서 발상을 행하는」점에 있다. 이로 인해, 대규모의 구조나 시스템 제품에 있어서도, 종래에는 있어서도, 종래에는 어려웠던 「자유로운 사고」와 「이상에 이루어진 사고」의 양립이 가능해 진다.

그의 구체적인 특징으로서 이하를 예로 들 수 있다.

1. 정리하기 쉽다
 - 디자인 요소간의 관계가 확실시 할 수 있다.
 - 아이디어의 차이를 확실시 할 수 있다.
 - 사고의 과정을 확실시 할 수 있다.
2. 사용하기 쉽다
 - 다양한 대상 영역에도 사용할 수 있다
 - 자유로운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다른 것과의 콜라보레이션에 사용할 수 있다

3. 발상하기 쉽다

· 새로운 가치를 낳는 아이디어를 발상할 수 있다

· 요소에 적합하여, 요소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발상할 수 있다

· 시즈를 활용한 아이디어를 발상할 수 있다

「M메서드」는, 이미 안경이나 USB 메모리와 같은 작은 물건으로부터, 절삭가공 시스템,반도체 생산 시스템, 자동차나 서비스 시스템을 포함하는 대규모의 교통 시스템까지, 다양한 디자인 대상에 이용되고 있고, 그 유효성이 입증되어 있다.

물건 만들기에의 기대 —새로운 가치창조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물건 만들기는, 대규모화·복잡화를 나아가게 되는 것은 필지이다. 그 때문에「자유로운 사고」와「이상에 이루어진 사고」의 양립이 불가결이며, 그로 인한 혁신적이면서 완성도가 높고 새로운 가치의 창조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지금, 디자인 과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이 급성장 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소산인 다공간의 디자인 사고 ; M메서드를 활용하는 것으로, 독자의 방법론을 구축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가치창조의 실현이 기대되고 있다.

< 도제 >

도 1 다공간 디자인 모델 (출전 : 『로바스트 디자인 - 「부정확함」에 대해 완강한 인공물의 설계법』 (모리키타 출판))

도 2 M메서드 (출전 : 『M메서드 - 다공간의 디자인 사고』 (근대과학사))